

제 1 교시

국어 영역

[현대 시]

(수능 특강 - 운동주, 「쉽게 씌어진 시」 // 고1, 2013.11)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學費封套)를 받아

대학(大學)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教授)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 운동주, 「쉽게 씌어진 시」 -

* 육첩방: 일본식 돛자리인 다다미 여섯 장을 깔 방.

(나)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땀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넒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바다-후포*에서」 -

* 후포: 올진 아래 있는 작은 항구.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② 명사로 끝나는 시행을 반복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이 작품은 운동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하며 쓴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고 두 자아는 화해를 이루게 된다.

- ①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군.
- ② ‘홀로 침전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군.
- ③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군.
- ④ ‘시대처럼 올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화해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군.

3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날’은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때를 의미한다.
- ② ‘티끌’은 화자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모습을 의미한다.
- ③ ‘돌’은 생각이 좁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
- ④ ‘동해바다’는 화자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다.
- ⑤ ‘채찍질’은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엄격한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수능 특강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고1, 2016.06)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겨우내

㉠ 햇볕 한 모금 들지 않던

뒤결 추녀 밑 마늘광 위로

㉡ 봄비는 나리어

㉢ 얼굴에 까만 먼지 쓰고

눈 감고 누워 세월 모르고 살아온

저 잔설(殘雪)을 일깨운다.

잔설은

투덜거리며 일어나

㉣ 때문은 이불 개켜 옆구리에 끼더니

슬쩍 어디론가 사라진다.

잔설이 떠나고 없는

추녀 밑 깨진 기왓장 틈으로

㉤ 종일 빗물이 스민다.

- 이동순, 「봄비」 -

(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하냥: 늘, 한결같이.

3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9.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햇볕이 내리는 현재 마늘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봄비가 내리는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잔설의 활발한 움직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은 잔설이 비에 녹아 없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내렸던 빗물이 말라가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조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란이 피기까지는」에는 모란이 피면 기뻐하고, 모란이 지면 절망에 빠지면서도 또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특히 부사어를 통해 이런 화자의 심정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 ① 3행의 ‘똑똑’은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② 4행의 ‘비로소’는 모란이 완전히 저버린 것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한다.
- ③ 9행의 ‘다’는 모란이 피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불안감을 강조한다.
- ④ 10행의 ‘하냥’은 모란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한다.
- ⑤ 12행의 ‘아직’은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한다.

(수능 특강 - 이준관, 「구부러진 길」 // 고1, 2017.03)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비알에 돌밭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일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늪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세월에 꿰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핏아주기도 하다가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늪은 느티나무들

-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

(나)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밤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 이준관, 「구부러진 길」 -

[A]

31.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대상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③ (가)는 역설적 표현으로, (나)는 반어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나)는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어미의 반복을 통해, (나)는 특정 시어들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32. <보기>를 참조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연의 순리를 파괴하고 건설된 현대 문명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강자에 의한 약자 지배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다양한 생명들은 생겨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 의존하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룬다. 문학은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현대 문명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인간형을 성찰하고 있는데, (가)와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① (가)의 ‘산비알에 돌밭에 저절로 나서’는 생겨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에서는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공생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 ③ (가)의 ‘우리 동네 늪은 느티나무들’은 강자에 의한 약자 지배가 심화되면서 다양성이 훼손된 자연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의 ‘구부러진 길’은 ‘민들레’, ‘사람’, ‘들꽃’ 등의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 공동체의 원리를 발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의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은 과도한 경쟁으로 생겨난 현대 문명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인간형으로 볼 수 있다.

(수능 특강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 고2, 2013.11 B형)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르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푸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

(나) 아마존 수족관집의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여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끊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컷바퀴에 소음 부글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 시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 후리지아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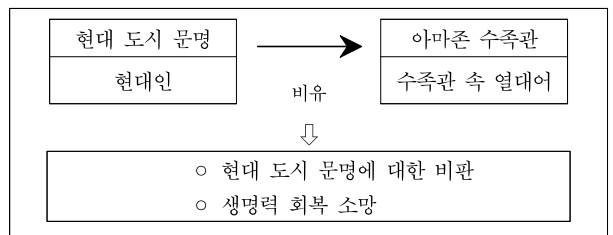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추일서정」은 시각적 이미지와 원근법을 사용하여 도시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화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물질문명적 소재를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 ① '낙엽'과 '포푸라나무'는 근경, '급행 열차'와 '구름'은 원경을 이루면서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구성되는군.
- ② '폴-란드 망명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군.
- ③ '흰 이빨'을 드러낸 '공장의 지붕'과 '돌팔매'가 잠기어 가는 도시 풍경을 통해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셀로판지'는 물질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구름을 표현하는 보조관념으로 쓰여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군.
-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소리까지도 시각화한 표현으로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는군.

43. (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② ㉡: 도시 건물의 철근과 간판에서 열대 아마존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 ④ ㉣: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로 볼 수 있다.
- ⑤ ㉤: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수능 특강 - 김현승, 「플라타너스」 // 고2, 2014.03 A형)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꿈을 이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이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 먼 길에 올 제
호올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길이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비판적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명령형의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은 현재의 삶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가 상상한 공간을, ㉡은 현실의 공간을 나타낸다.
 - ③ ㉠은 화자가 체험한 것을, ㉡은 화자가 지향하는 것을 나타낸다.
 - ④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을 나타낸다.
 - ⑤ ㉠과 ㉡ 모두 화자가 동반자를 만나 함께 정착하는 삶을 나타낸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그늘을 만들어 가로수로 널리 쓰이는 ‘플라타너스’의 속성에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꿈을 지닌 플라타너스는 화자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고독한 화자에게 자신이 지닌 사랑과 배려의 덕성을 베풀어주고 있다. 그런 플라타너스를 통해 화자는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품게 된다.

- ① 1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꿈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군.
- ② 2연에서 화자는 타인을 배려하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나타내고 있군.
- ③ 3연에서 화자는 고독할 때 자신에게 위안이 되었던 ‘플라타너스’를 떠올리고 있군.
- ④ 4연에서 화자는 자신과 ‘플라타너스’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군.
- ⑤ 5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수능 특강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고2, 2014.09 B형)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A]

협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白茂線)*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B]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C]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D]

- 이용악, 「그리움」 -

* 백무선: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나) 산그늘 내린 발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툰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쇠아쇠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서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쇠아쇠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툰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눈'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차가움의 이미지와는 달리 포근하고 아늑한 이미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 ① [A]에서 고향을 나타내는 '북쪽'을 '함박눈'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군.
- ② [B]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과 '눈'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부각하였군.
- ③ [B]에서 '너'가 있는 '작은 마을'의 '복된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축되어 있군.
- ④ [C]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곳에서 '잠'을 깬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하겠군.
- ⑤ [D]에서 '함박눈'이 '내리는가'를 다시 반복하여 고향과 그리움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군.

40. 다음을 바탕으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벌레 한 마리도 밟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할머니를 따라 참깨 터는 것을 도와드렸던 어느 날이었다. ①날이 저물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나는 조급함에 막대기로 힘껏 참깨를 털었다. 그때 ②쏟아지는 알맹이들을 보면서 뜻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는 듯한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③참깨를 털어내듯이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신나게 참깨를 털 때 할머니께서는 참깨의 모가지까지 털어지면 안 된다며 타이르셨다. ④할머니께서는 참깨를 털 때 슬슬 막대기질을 하셨다. 이는 순리대로 살아가시는 지혜였다. 할머니께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10년 가까이 도시에 살면서 ⑤무엇인가를 조급하게 많이 얻으려는 도시적 삶에 익숙해 가는 나에게 할머니의 참깨를 터는 모습은 소중한 ‘꾸중’이 되었다.

(수능 특강 - 김선우, 「빌려줄 몸 한채」 // 고2, 2015.09 B형)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성에서 조지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①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지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於口)에 그들은 떼를 저 물려 있었다. 멍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와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②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나)

속이 짝 찬 배추가 분디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걸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 중 땅에 가까운 잎 몇장이 스스로 걸잎 되어 ③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④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불*을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 김선우, 「빌려줄 몸 한채」 -

* 결과: 호배추나 배추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등갈게 속이 드는 일.

* 알뜰: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솥 토막이 무엇에 싸이거나 담기지 않음.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계절의 순환에, (나)의 화자는 특정한 계절에 주목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나)의 화자는 더불어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세계를, (나)의 화자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희망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여행자로써의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실향민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보며 깨닫게 된 자신의 내면을, (나)의 화자는 한 공간에서 대상을 지켜보며 터득한 삶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짧은 의문문과 평서문을 연달아 배치하여 표현함으로써 나무로부터 받은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삶의 모순에 대한 거부감을 열거와 영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구를 통해 몸을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배추의 결구가 생기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 새로 알게 된 삶의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에게 자연은 창작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자연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배경이자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말을 건네거나 감정을 교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에서 자연은 때로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로, 때로는 지친 삶을 위로해 주는 존재로, 때로는 감정이입의 소재로 나타나게 된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여행길에서 만난 '나무'를 통해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군.
- ② (가)에서 화자는 '내 안에 뿌리를' 편 나무들의 여러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군.
- ③ (가)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나무는 화자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배추에게서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배추의 성장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군.

(수능 특강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 일 땅이 있었더라면」 // 고3, 2014.03 B형)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이처럼 ㉢ 떠돌으라,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라, 남북이라,

내 몸은 ㉣ 떠 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이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여.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심정일!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

* 보습: 땅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의 일종.

* 산경: 산에 있는 경작지.

(나)

〔 너 들어 보았니
 [A] 저 동구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B]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뿜어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C]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뽕뽕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나누어
 [D]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E]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복소리**는
 왜 뚱뚱 울리겠니

- 고재중,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

*우듬지: 나무줄기 꼭대기.
 *면면함: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 있음.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②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 ④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한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삶의 터전을 상실한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 ③ ㉢: 과거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세가 나타난다.
 - ④ ㉣: 유랑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 ⑤ ㉣: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 보 기 > —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는 이 시는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놓고 있다. 그러나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상처를 회복하며 생명을 이어가듯 농촌 역시 생명력과 공동체를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생(生)의 의미로 확장되어, 면면히 '겨울'을 이겨낸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일깨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제목인 '면면함'은 이 시의 주제를 함축한다.

- ① [B], [D]의 상황 대조를 통해 '푸르른 울음소리'의 정체가 시련을 딛고 뿜어져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임을 '나무'가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② [C]의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의 단면이 드러나며, 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가지 뽕뽕히 후리던 소리'에 투영되어 있군.
- ③ [D], [E]를 통해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낸 '오늘'의 '나무'를 '쳐다보'며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E]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새 희망을 주고 있음을 '복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⑤ [A] ~ [E]를 통해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삶이 동일시됨으로써, '면면함'의 의미가 고난을 이겨내는 끈질긴 삶과 생명력에 있음을 알 수 있군.

(수능 특강 - 한용운, 「님의 침묵」 // 고3, 2014.07 B형)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①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②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③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칩니다.

④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
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실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 노신(魯迅): 루쉰,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가족 제도의 폐해를 폭로하거나 중국의 의식 개혁을 주창하는 등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들을 저술했다.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초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부정적 상황이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원망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
- ⑤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 나타나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임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통해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연쇄법을 사용하여 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접속어를 사용하여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김광균의 「노신」은 시인으로서 어렵게 살아온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흔들는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적 고통으로 인해 고뇌하던 중,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신념을 지켰던 노신의 삶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고 있다.

- 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는 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화자의 탄식이라 할 수 있군.
- ②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지나는 돌팔매'에서 화자가 그동안 견뎌왔던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등불'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노신의 삶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④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에서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느껴지는군.
- ⑤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에서는 노신처럼 사회의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국평일 배포 자료 EBS 현대시

by 교육청 · 평가원

정답

고1, 2013.11 「쉽게 씌어진 시」 31. ④ 32. ② 33. ②
고1, 2016.06 「모란이 피기까지는」 38. ① 39. ④ 40. ③
고1, 2017.03 「구부러진 길」 31. ⑤ 32. ③ 33. ②

고2, 2013.11 B형 「아마존 수족관」 41. ④ 42. ⑤ 43. ⑤
고2, 2014.03 A형 「플라타너스」 31. ① 32. ③ 33. ⑤
고2, 2014.09 B형 「참깨를 털면서」 38. ④ 39. ③ 40. ④
고2, 2015.09 「빌려줄 몸 한 채」 43. ⑤ 44. ② 45. ①

고3, 2014.03 B형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31. ③ 32. ① 33. ④
고3 2014.07 B형 「님의 침묵」 41. ⑤ 42. ④ 43. ②